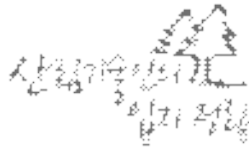


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		보도자료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총 2쪽	
배포일시	2025. 10. 20.(월요일)	담당부서		일반사업본부	

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... “ 산림 분야 발전 선도 ” -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서 수훈 ... 임업 · 산림사업 공로 인정 -



사진 = 지난 18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린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(사진 우측)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.

-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이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.
- 2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국민훈장 모란장은 정부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, 국민훈장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.
- 진영문 회장은 지난 40여 년간 산림기술사로서 전국의 산림 현장을 누비며, 정책 · 기술 · 안전 · 인력양성 등 산림 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다.

- 특히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로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,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해왔다.
- 이를 통해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.
- 앞서 한국기술사회 덕원기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은, 진영문 회장이 오랜 기간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해 쌓아온 헌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.
- 진영문 회장은 “이번 수훈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, 오랜 시간 묵묵히 산림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산림기술인 모두에게 주어진 훈장이라 생각한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- 이어 “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보호, 그리고 우리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정책,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진영문 회장은 원광대학교 농학박사이자 산림기술사로서 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위원,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, (사)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도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산림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.

